韓國住居學會學術發表論文集
第 2 卷 1991年 9月 28日

농촌 주거공간의 특성 및 변용에 관한 연구

— 임하댐 수몰지역 광덕마을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transformation of the rural dwelling space

— In the case of Kwang Duk Village in Imha Dam Flooded Area —

채 경 희*
Chae, Kyoung Hee
정 준 현**
Jeong, Jun Hyun
이 중 우***
Lhee, Joong W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vested, recorded about traditional dwelling space, and there is to find out possibilites on the context of the inheritance of traditional life through analzing about life contents and spa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Kwang Duk villiage is the typical traditional town where the confucian view of life still affects on overall housing life.

2) The pattern of layout is mainly '一' and 'ㄱ' shaped type. In the plane and structural form, the original form is, though some parts have changed, maintained.

3)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ransformation state of dwelling space, the category of transformation is summerized as follows ; changes of room function, increase and decrease of annex, and room size by changes of family structure, life style, farming operation style.

* 정회원, 계명대 대학원 석사과정
** 정회원, 대구대 전임강사
*** 정회원, 계명대 교수, 공학박사

1. 서 론

1-1. 연구의 의의와 목적

청송군 광덕마을은 임하댐 건설로 가옥 뿐만아니라 오랫동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주민들의 생활 터전인 논과 밭의 상당부분이 수몰됨에 따라 이 지역 주민의 생활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특히 이 지역은 안동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권에 속하며, 생활의 여러면에서 아직도 전통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으로 일부 주택 및 생활환경이 개선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전통적 생활내용이 전수되고 있는 고로, 이들지역은 곧 우리의 전통적 생활문화를 교육하는 산 교육장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 지역의 생활공간에 대한 전통적 가치를 높이 인식하고 이를 자료화하고자 함이 일차적 목적이며, 아울러 주거공간의 구성적 특징과 변용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전통주거건축의 구성적 법칙성을 찾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광덕마을은 임하댐 수몰지역의 다른 여러 마을들 중에서도 역사적, 문화적, 생활적 내용으로 보아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선정되어졌다.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문헌을 통해 조사지역에 대한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파악하고 마을의 형성배경 및 주거공간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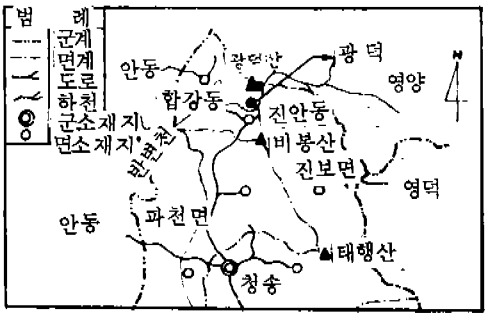
2) 주거공간 구성요소인 배치형태와 평면유형 및 공간의 구조적 형상을 실측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주거공간의 구성상 특징을 논하고자 하였다.

3) 또한 공간의 변용의 원인과 그 실태를 분석 정리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1차조사(1989. 7. 15-1989. 7. 25) : 현지답사, 조사지역의 현황파악, 평면유형 및 구조 실측조사, 주민과의 인터뷰

2차조사(1990. 7. 20-1990. 7. 25) : 보완조사



〈그림 1〉 조사대상지역의 위치도

2. 연구대상지역의 개황

2-1. 자연지리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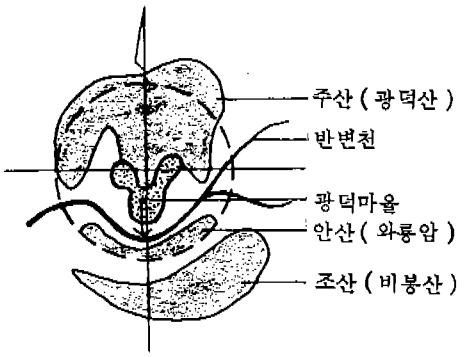
광덕동은 경북 안동에서 34번국도를 따라 동쪽으로 약 36km지점의 진보읍에서 북쪽으로 약 1.5km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의 지세를 살펴보면, 일월산의 준령이 남으로 뻗어 내려오다 마을 뒷산의 광덕산(484 m)에 머물러 마을의 주산을 이루고, 그 능선아래로 완만한 곳에 취락군이 형성되어 있다. 마을 입구에는 안산격인 바이산(와룡암)이 마을앞을 감싸고 있으며, 멀리 남쪽 비봉산(671m)이 조산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형상에 의해 이 마을은 연화부수형의 형국으로서 안동 하회마을과 유사하다고 한다.

마을의 공간구성은 이러한 지리적 특징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주산에서 내려온 능선이 세갈래로 갈라져 완만한 둔덕을 이룬곳에 각각의 특징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마을의 중간은 읍동으로서 능선이 끝나는 부분에 종택이 있다. 그

앞으로 옛날에는 읍청, 객사를 비롯한 공공건물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좌측능선에 형성된 교동은 능선상부에 향교가 있었다고 붙여졌으며, 그 밑으로 능선을 따라 오면서 제사와 민가가 밀집 배치되어 있다. 마을 우측은 마을과 떨어진 골짜기에 절터가 있었다고 하여 절골 혹은 사동이라 칭하였다. 능선 윗 부분에 종택과 정자가 있고 그 아래로 민가가 밀집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에 따라 생활공간이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이 마을은 지형의 넓은 형국에 의하여 비교적 규모있는 마을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림 2〉 광덕마을의 풍수적 영역 개념도

2—2. 인문사회적 배경

이 마을은 지금으로 부터 약 400년전에 형성되었다. 당시는 백씨, 안씨들이 살면서 물위에 떠 있는 동네라 하여 한상이라 하였는데 그 이후 안동 권씨가 입향하면서 한양과 닮았다 하여 신한으로 칭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마을을 이룬 시조는 안동 권씨 귀암공파 시조인 권덕조(귀암공)어른이며, 현재는 5개파가 함께 살고 있다(귀암공파, 습독공파, 참의공파, 봉사공파, 송만공파).

현재 마을의 성씨분포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동 권씨가 대부분으로서 하나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운영을 위해서 동, 반장, 청년회 등의 공식적 조직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비공식적인 것으로는 상포계, 자성계, 수계 등이 조직되어 이를 통해 마을 구성원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표 1〉 마을의 성씨분포

성 씨	權	南	李	申	金	崔	기타	計
분 포	76	3	8	5	13	3	22	130
%	58	2	6	4	10	2	17	99

2—3. 생활경제적 배경

이 마을은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인근에 감호소가 들어오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마을로 들어와 살고 있다. 그리고 논농사의 비중이 크며, 밭은 대부분 과수원이었으나 일부가 감호소 부지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임하댐 건설로 농사의 비중이 큰 논이 대부분 수몰되고, 전체의 1/3정도만이 남게 됨으로서 앞으로 경제생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경제적 기반이 흔들린 것을 주민 대부분이 비관하고 있다. 경작물은 벼 이외에 과수와 고추, 담배가 주를 이루며, 가축은 소, 개, 돼지 등을 1가구당 1—2마리 정도 기르고 있으며, 마을 진입의 입구인 진보읍의 5일장이 경제활동영역으로 포함되고 있다.

한편 농사에 참여하고 있는 연령층은 40—50세 이상이 대부분이다. 젊은 층은 직장과 학교관계로 인해 대부분 도회지로 나가고 현재 부모와 노부모만이 거주하는 쇄퇴형기의 가족형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규모와 가족구조의 변화는 주생활 공간의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생각되어진다.

2-4. 민속문화적 배경

지금까지도 이 마을에서는 마을 공동행사로서 동제가 엄숙히 거행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행사를 통해 지연적인 단합과 동네의 평온 및 화목을 기원하고 동네와 내 가정의 복을 기원하는 민간신앙적 의미뿐만 아니라, 농경사회의 협동심을 다져왔던 것이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가정생활에 있어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가신이 있다고 믿어 왔으며, 이들에 대한 신앙은 생활화되어 왔다. 가신의 형태는 삼신, 성주, 조왕, 용단지 등이며 지금도 극진히 섬기는 집들이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혼례를 위해 동창고에는 관복과 쪽두리 등이 보관되어 있으나, 요즘은 대부분 진보욥에 나가 혼례를 치름으로서 민속유물은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도 상례는 전형적인 전통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상례를 위해 필요한 장구를 관리하는 상여집이 사동(절골)에 있다. 그리고 상례를 위해 상포계가 조직되어 있으며, 그 구성인원은 읍동에 70호 정도, 사동(절골)에 40호, 교동에 25호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세든 가구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민속문화적 내용을 아직도 생활의 여러 면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나, 이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질서가 파괴되고 변화됨으로써, 이러한 전통적인 생활모습은 점차 그 빛을 잃어 갈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동신 및 가신신앙 유형 및 특징

종	류	장 소	신체형태	신앙내용	시 기	제 물
동신신앙		읍동 : 학교앞 교동 : 향교앞 사동 : 없음	신 당 당 목	마을 평안, 무사, 화목	정월 14일에 유사와 제관이 제를 올림	밥, 떡 등
가신신앙	삼 신	안방 아랫목쪽 시렁위 구석	바가지에 쌀을 담음. 한지로 덮고 실 1타래로 동여맴	애기 잘 낳고 무병, 산모의 빠른 회복 산모 순산	봄, 가을 설, 정월대보름 추석, 애기를 낳은 후 7일, 14일, 21일	백편(백설기) 밥 1사발 미역국 1대접 정화수 1대접
	성 주	대청대들보밑	한지, 실한타래	가족평안 농사풍년 집안번창	성주생일날 설, 정월대보름 추석	백편 밥, 국 1사발 3색 실과
	칠 성	장독대한편, 집뒷곁 자연석 1개단	없음	마음속으로 축원 한뒤 소지를 올림	우환이 생겼을때	정한수 1그릇
	용단지	뒷뜰부엌문 밖, 처마밑 바닥, 안방삼신바가지 바로밑, 곳간, 고방, 마루, 다락	옹기단지에 쌀을 가득 담고 한지로 덮고 실타래로 동여맨 납작한 돌을 올려 놓음 오지단지	제수좋고 농사 잘 되길 빔	봄, 가을 설, 정월대보름	밥 1그릇 정화수 1그릇
	조 왕	부엌, 부뚜막 큰 솥뒤	없음 (건궁조왕)	환자쾌유 만사형통을 축원	가족이 아플때 빈다. 설, 정월대보름, 추석 집안일이 잘안될때 성주앞에 제를 올릴때마다	솥밤, 떡, 3색실과, 채, 포를 솥앞 부뚜막에 진설

3. 주거공간 구성의 특징

3—1. 주거공간의 배치 유형

대부분의 전통적인 생활공간은 자연적 환경과 그리고 전통적 생활 내용에 따라 경제적 여건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전통 건축에 있어 주택의 배치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으며, 이는 풍수적 관념에 따라 건물의 향과 실 배치 등이 이루워졌으며, 오늘날에도 우리 생활의식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배치의 좌향은 양택론에 입각하여 크게 동사택, 서사택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민가의 배치 방법은 주로 살림채와 부속채의 관계로 나타난다. 광덕동의 주생활 공간의 배치 유형을 살림채와 부속채의 배치 형상에 따라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면 〈표 3〉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ㄱ'자형 배치유형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ㄱ'자형 중에서도 별동형이 주를 이루는 것은 건축기술의 미약도 원인이 될 수 있으나 화재나 공기유통의 목적도 포함된 것이며 별동형의 부속채 건물은 본채보다 조금 늦게 건립된 것으로 농촌생활의 필요에 의해 가축이나 곡식의 보관 창고로 이용되며 관리를 위해 본채 측면으로 배치된 것을 볼수 있다. 또한 겨울의 북풍을 막기 위해 부속채를 배치한 예도 있어 기후요소나 자연지리적 요소가 건물의배비치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외 다양한 배치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지형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된 것으로 여겨진다.

〈표 3〉 주거공간의 배치유형 분류 및 분포

분류		유형	예수	%
일자형			30	29.1
병렬형			1	0.9
ㄱ자	둔각형		4	3.8
	예각형		2	1.9
	별동형		40	52.4
	안채접속형		14	
ㄷ자형			5	4.8
ㅁ자	완전형		2	6.7
	날개형		3	
	튼ㅁ자형		2	
계			103	100

〔범례 : ■ : 안채, □ : 부속채〕

3—2. 주거공간의 평면유형

주생활 공간의 평면구성을 전체적으로 평면형상에 따라 一자형, ㄱ자형, ㄷ자형, ㅁ자형(뜰집형)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퇴와 유무, 복합 등에 따라 생활공간이 유형을 분류한 결과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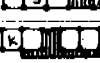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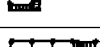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一'자형의 무퇴형과 전면에 툇마루가 있는 평면형이 마을 전체 가옥중에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ㄱ'자유형 중에는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통간마루가 있는 마루통간형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리고 'ㄱ'자와 '一'자유형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이 마을에서는 유일하게 한호가 있다.

일명 '뜰집'으로 칭하고 있는 'ㅁ'자유형의 평면은 다시 툇마루형과 복합형으로 구분되며, 뜰집의 평면유형은 대부분 통간마루와 툇마루가 복합된 유형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겹집형식의 평면유형도 다수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곳이 북부 산간지역에 속함으로써 북부형의 평면유형이 자연스러이 전파된 것으로 보여진다.

		분 류	평면유형	예수	%
홑집계열	一자형	무 퇴 형		36	34.9
		툇 마 루 형		19	18.4
		통 간 형		4	3.8
		복 합 형		7	6.7
	ㄱ자형	무 퇴 형		3	2.9
		통 간 형		13	12.6
		복 합 형		1	9.7
	ㄷ자형	통 간 형		1	9.7
	ㅁ자형	툇 마 루 형		2	1.9
		복 합 형		5	4.8
겹집계열		툇 마 루 형		2	1.9
		통 간 형		5	4.8
		복 합 형		5	4.8
계				103	100

〈그림 3〉 주거공간 평면유형 분류 및 분포

3—3. 주거공간의 형상

우리나라 전통주택은 목조가구식의 단층구조 형식을 치하여 왔다. 목조가구식 구조 요소인 지붕, 처마, 창호, 벽체, 기단, 기초등의 내용을 통해 주거공간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주초방식은 덤벙주초 방식이 주종을 이루며, 그랭이질을 한 정평주초 방식도 보인다. 기단은 석축기단과 토기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대부분 새마을 사업시 시멘트기단으로 변형되었다. 마루의 형식을 살펴보면 대청은 우물마루, 쪽마루의 장마루 형식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기둥은 각주가 대부분이나 상류주택의 종택, 정자, 재실 등에는 원형기둥의 민흘림기둥이 이용되었다. 도리형식은 민도리집이 대부분이며 가구형식은 3량이 대부분이다.

지붕은 재료가 기와일 경우에 대부분의 가옥에서 합각지붕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초가지붕은 새마을 사업기간동안 스레트로 개량되었으며, 현재 지붕재료로서는 기와와 스레트가 주류를 이룬다.

창호의 각 위치별로 살펴보면 정지의 앞, 뒷문은 쌍여닫이의 판장문이 압도적이고 큰방이나 머릿방의 앞쪽은 쌍여닫이의 띠살 창호지문이며, 옆이나 뒷쪽은 외여닫이의 빗살문이 일반적이다.

〈표 4〉는 이 마을의 전체 103가옥중 평면유형별로 특징적인 가옥 15가구를 대상으로 구조분석을 한 일람표로서 새로운 재료의 이용과 생활의 변화에 따른 평면형의 변화등이 있었으나 기본적인 주택의 구조는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표본가옥 구조일람표

구분	하부구조							벽구조						상부구조															
	초석		기단			마루		기등				벽체		도리		가구			처마		지붕형태			지붕재료			
가옥명	막돌덤벙	막돌정평	토기단	석축	시멘트	우물마루	장마루	민흘림	배흘림	원통	각주	심벽	평벽	민도리	굴도리	3량	4량	5량	홑처마	겹처마	우진각	합각	맛배	초가	기와	함석	스레트
권 태 근	○		○								○		○	○		○			○		○			○			
(읍 동) 권 영 길	○				○	○					○	○		○		○			○			○			○		
(사 동) 권 영 길	○				○						○	○		○		○			○			○			○		
권 영 칠	○		○								○	○		○		○			○			○			○		
권 영 예	○		○			○					○	○		○		○			○			○			○		
권 중 오	○				○	○		○				○			○	○			○			○			○		
권 태 동	○				○	○					○	○		○		○			○			○			○		
권 오 설	○		○				○				○	○		○		○						○					○
권 영 구	○				○						○	○		○		○			○			○			○		
이 재 기	○				○		○			○	○	○		○		○			○			○			○		
권 기 대	○				○	○				○	○	○		○			○		○			○			○		
이 병 주	○				○	○					○	○		○		○			○				○		○		
권 영 설*					○		○						○														
권 덕 오	○		○								○	○		○		○						○			○		
권 영 재	○				○						○	○		○		○			○			○			○		
계	14	0	5	0	10	6	3	1	0	2	13	13	2	13	1	13	1	0	12	0	1	12	1	1	12	0	1

*는 개량주택임.

4. 주거공간의 변용

주거공간의 변용에 원인이 되는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의한 생활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생활내용의 변화, 그리고 가족구조의 변화와 농사경영방법의 변화등을 들수 있겠다.

이러한 요인에 따른 주거공간의 변용실태를 실면적의 증·감소, 실 기능의 변화, 부속채의 증·감소, 여유공간의 임대 등으로 나누어 그 실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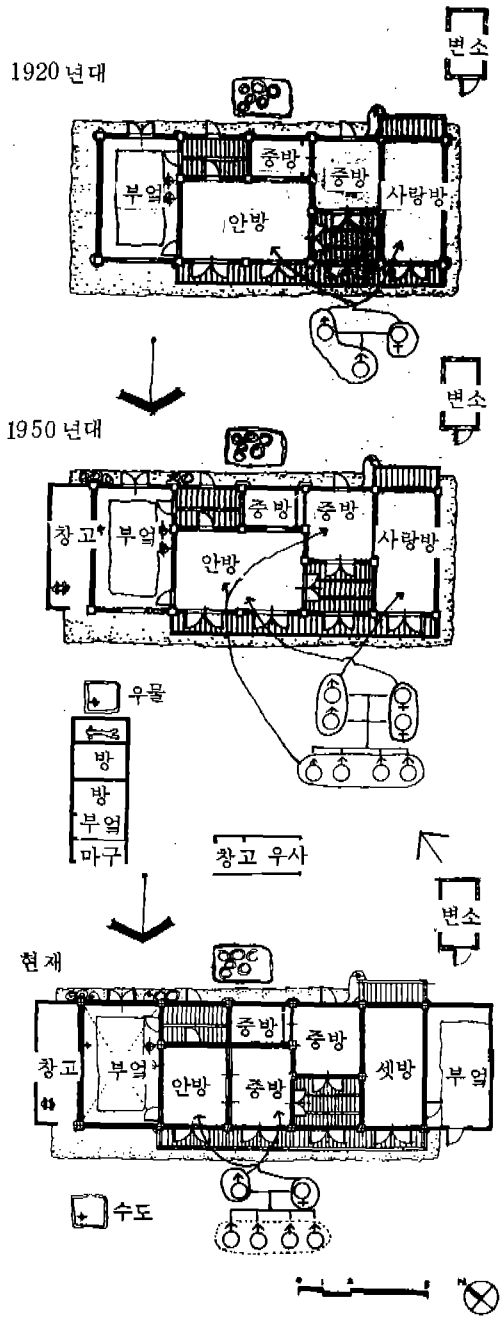
4—1. 실 면적의 변화

주거내의 실의 면적에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로 귀암공파 12대손인 권태동씨댁을 들수 있다.

이 가옥은 약 150년전에 지어졌으며, 당시 전면 5칸 겹집으로 아랫채와 우사가 있었다.

권태동씨에 의하면, 본인은 사랑방에서 아버님과 함께 거처했으며,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최씨)

와 며느리가 사용했으며 그때 안방은 긴 장방이었으며 중방은 자식들의 공부방으로 사용했고 안마



〈그림 4〉 실면적의 변화 예(권태동씨 댁)

루에서는 정지방 겸으로 상차림과 며느리들의 식사공간으로 이용되었으며 그릇도 보관했다. 아랫채는 방과 고방, 방앗간이 있었는데 사라호 태풍때 허물게 되었다 한다.

현재 노부부만 생활하고 있으며 사랑방은 옆으로 부엌을 달아 셋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본채에 아랫채까지 있었을 때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었던 가옥으로 생각되며 인근의 다른집에 비해 각실의 규모가 크며 화장실도 내측, 외측이 따로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생활도 내·외가 분명하여 노부부가 넓은 안방을 칸막이 벽으로 나누어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공간변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본채만 있던 것을 아랫채와 우사를 새로 지었으며, 안방은 긴 장방이었으나, 중방과 안방으로 분리하였고, 부엌 옆에 창고겸 변소를 내달았다. 아랫채와 우사, 우물은 사라호 태풍때 허물어졌으며, 대문은 처음에는 동남쪽에 있었으나 모친이 서남쪽으로 바꾸면 집안이 평안하고 복이 들어온다고 하여 바꾸었다고 한다.

집 앞으로 새길이 나면서 우사가 헐리고 300평쯤 되던 앞마당의 일부도 도로로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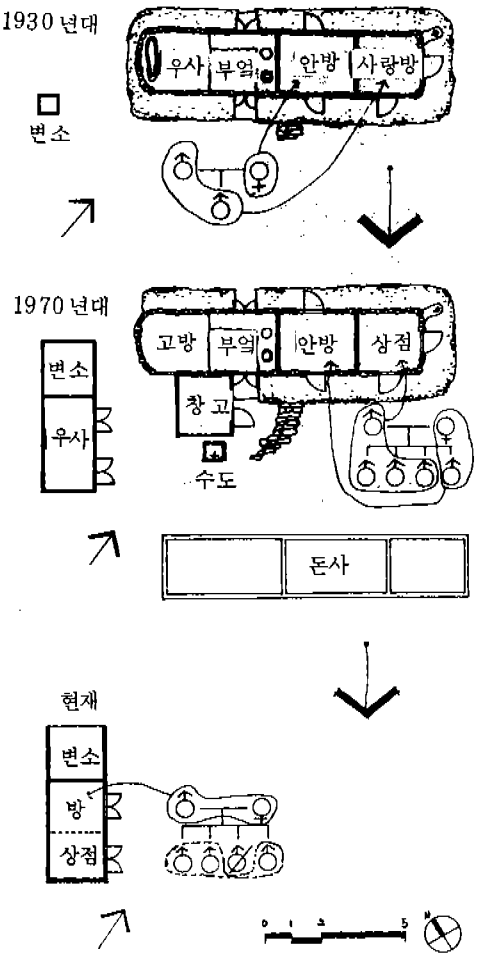
4-2. 실 기능의 변화

실 기능의 변화가 이루어진 경우는 권태근씨 가옥을 들수 있다.

이 가옥은 약 200년전에 지어진 전형적인 민가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전면 4칸, 측면 1칸의 홑집형태로서 흙과 돌을 섞어 만든 토벽의 초가이다. 그러나 이 주택은 최근까지(1989년) 그 원형을 유지해 왔으나 현재는 허물고 그 터만 남아 있다.

이용실태를 살피보면 장남인 권태근씨가 장가를 들기 이전까지는 4칸 본채의 사랑방에서 아버님과 본인이 기거를 하고, 안방에서는 어머님이 거처를 하였으나 1960년 경에는 부모님들이 사망하자 권태근씨 부부와 막내 아들이 안방에 거처 하고, 3남이 사랑방에 거처했다.

한편 공간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4칸 본채만 있던 것이 그후 부속채 돈사를 지었다. 그러나 현재는 본채를 허물고(1989) 부속채만을 개조하여 부부가 살고 있으며 건너방은 마을의 구판장으로 변경되었다.



〈그림 5〉 실 기능의 변화 예(권태근씨 댁)

있던 우사를 아랫채로 옮기고 그 자리를 고방으로 만들어 곡물을 저장했었다. 현재 남아있는 부속채는 우사를 방과 상점으로 다시 꾸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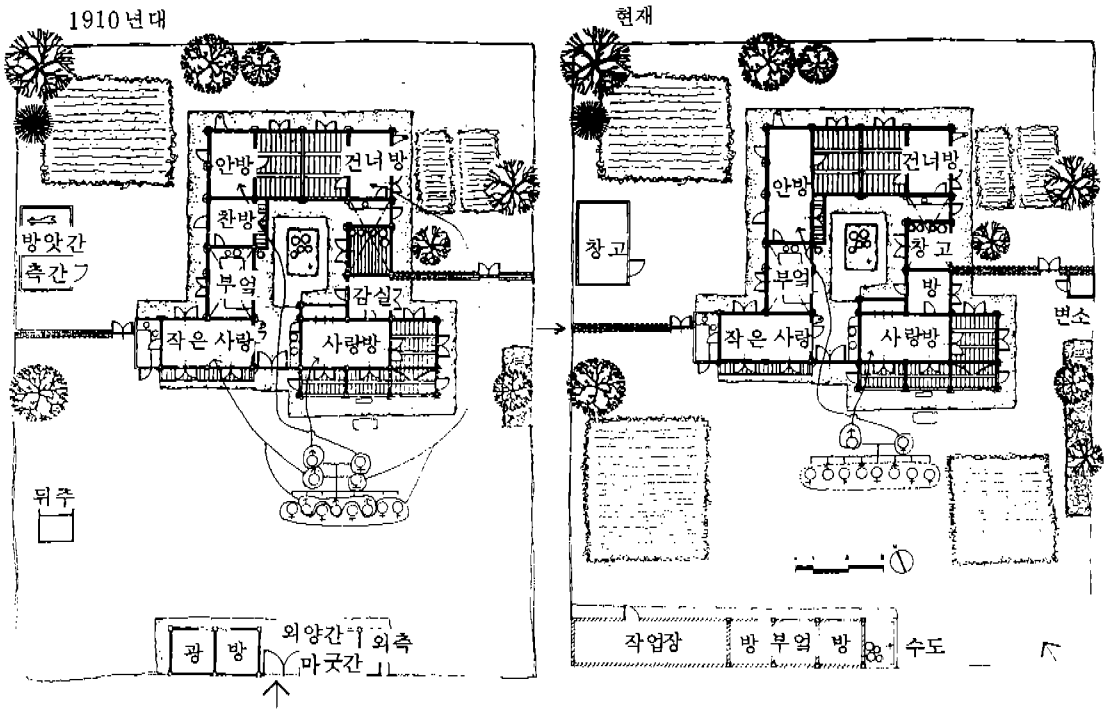
그러나 그 이전에는 본채의 사랑방을 상점으로 개조하여 마을의 구판장으로 이용하고 변소와 우사를 부속채로 새로 증축하였으나, 본채에 딸려

4—3. 부속채의 변화

농가주택에서 부속채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그리하여 부속채의 증축 혹은 기능 변화는 농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행위다. 재령이씨 종택의 경우는 약 210년의 역사를 가진 가옥이나 60여년 전에 이곳으로 이전한 것이다.

공간이용을 살펴보면 안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안방과 건너방에 각각 거처하였으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는 안방으로 며느리가 거처를 옮겼다. 이병주씨는 작은사랑에 거처하고 그의 아버지는 큰사랑에서 기거했다. 현재는 안방을 넓게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안방을 반으로 나누어 안행랑방 혹은 찬방으로 사용했다. 이 안행랑방에서는 여자하인들이 거처하고 추운 겨울에는 여기서 상차림을 하기도 했다 한다.

부속채로는 행랑채와 마굿간, 외양간을 두었으며, 측간을 마굿간 옆에 두었다. 처음 대문간은 건물의 정면에 위치 하였으나 모친께서 살아계실때 풍수지리설에 따라 자손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문간을 동남방향으로 옮겼었다. 안채 옆으로 방아간과 내측간을 두었으나 현재는 없애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약 10여년전에 행랑채를 더 늘려 방 2개와 부엌, 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였다고 한다.



〈그림 6〉 부속채의 변화 예
(재령이씨 종택)

4—4. 임대를 위한 공간의 변화

인근지역에 감호소가 들어 오면서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이 마을에 거주함으로써 기존 주거공간을 개조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 전형적인 예가 권기대씨 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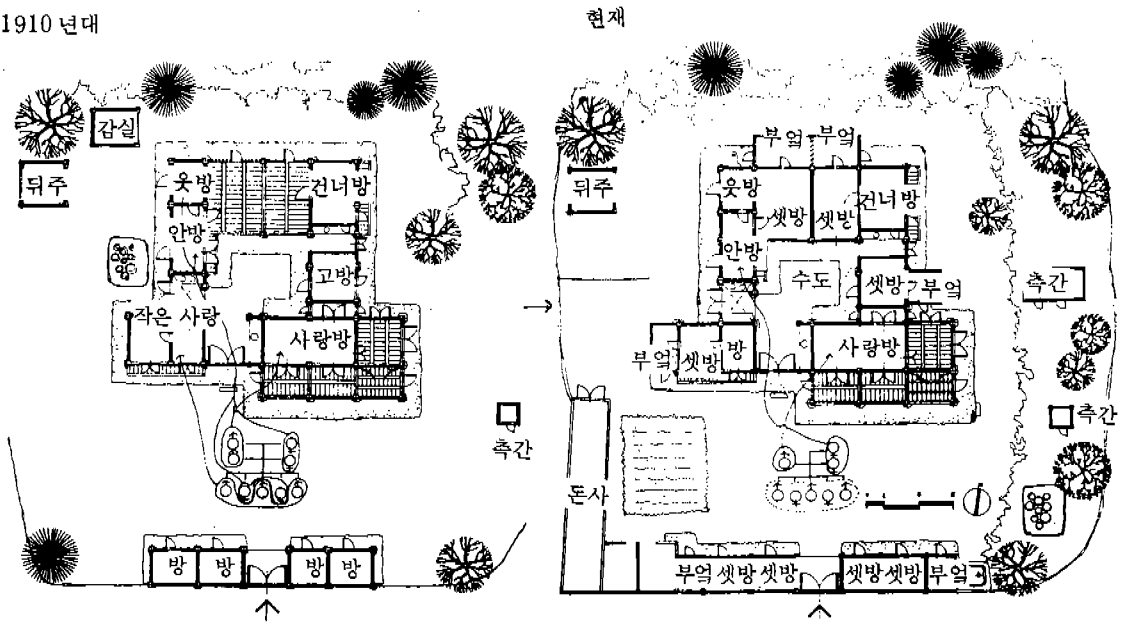
이 가옥은 풍수지리적으로 보아 광덕동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약 100여년전에 지어진 것으로, 안채는 전면 4칸, 사랑채는 전면 6칸, 행랑채는 전면 5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옥은 안동권씨 習讀公派의 종가로 사랑채의 기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아 그 위세를 짐작할 수 있으며, 안채와 사랑채의 분리가 뚜렷하여 엄격했던 남여구분의식의 생활이 엿보인다.

공간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사랑방은 권기대씨와 아버님이 거처를 하였고, 안주인과 어머님이 안채에서 생활하였다. 아들 3형제는 중간사랑에서, 딸 2명은 웃방에서 생활을 하였다. 건너방은 당시 비워두었으나, 아들들이 장가를 가면 며느리가 일시 거처를 하거나 친척들이 잠시 거처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대청을 방으로 개조하고 부엌을 달아서 임대를 하고 있다. 또한 건너방, 고방, 중간사랑, 행랑채등에도 부엌을 달고 모두 임대를 하고 있다. 갓사랑방의 하나는 평소에 비워 두었다가 외제에 나간 자녀들이 오면 거처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가족구조의 축소에 의하여 여유공간이 늘어 나게 되고, 주택의 유지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이 약화됨으로서 경제적 수단의 한 방편으로 이해되어 진다.



〈그림 7〉 임대를 위한 공간변화 예
(권기대씨 댁)

5. 결 론

연구대상지역인 광덕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 이였으나 임하댐 공사로 인하여 마을 일부가 수몰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통해 이 마을 생활공간의 특성과 그 변용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주거건축의 전통성을 재조명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마을인 광덕동은 유교적 생활관이 생활의 전반에 걸쳐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형적인 전통마을로 그들의 생활을 담고있는 주거공간은 자연지리적, 인문사회적, 생활경제적, 민속문화적인 여러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 주거공간 구성상의 특징으로 배치유형은 자연지리적인 여러 요인들과 경제적인 여건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ㄱ'자형의 별동형과 '一'자형이 대부분이다. 주거공간의 평면유형은 '一'자형의 무퇴 3칸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이는 남부지방 서민주택의 전형적인 주택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거공간을 형성하는 지붕, 처마, 벽, 창호, 기단 등은 새마을 사업에 의해 일부 변화가 있으나 구조면에서는 대부분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3) 주거공간의 변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그 직접적인 동기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생활방식의 변화, 영농작업방식의 변화등을 들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형태는 부속채의 증·감소, 실 기능의 변화, 실의 면적 증·감소등의 내용으로 변용되었다.

참 고 문 헌

1. 강영환, "삼척이남 동해안지역 전통민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9.
2. 건설부, 「臨河多目的댐 建物調査」, 1984.
3. 金光彦, 「韓國의 住居民俗誌」, 民音社, 1989.
4. 김봉렬, "지역공동체로서의 전통마을과 도시", 「건축과 환경」, 1986. 5.
5. 공간지, "한국전통주택의 공간구성", 공간, 1984. 11.
6.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경상북도 지명유래 총람」, 1984.
7. 경상북도·안동대학박물관, 「安東地區傳統文化遺蹟保存開發計劃」, 1986.
8. _____, 「臨河댐水沒地域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 1986.
9. 문화공보부,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住生活편)」, 제16권, 1987.
10. 윤홍택, "자연관이 건축공간구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호지 23권 86호, 1976.
11. 이상정, "한국남부해안지역의 지역성에 적응하는 주거건축의 적정계획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8.
12. 李鍾弼외 3, 「嶺南地方 固有聚落의 空間構造」, 영남대 출판부, 1983.
13. 이재헌, 도용호, "전통주거의 유기적 상호연결 인자에 관한 연구", 청주대 산업과학연구 제6권, 1988.
14. 이중우, "체·용사상에서 본 주거공간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88.
15. 이중우·이해성, "주생활반응에 의한 주공간 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4권 4호, 1988. 8.
16. 이응희·김영철·이중우, "안동문화권의 주거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1. 2.
17. 임영배외 1인, "주암댐 수몰지역의 정주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1)",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4권 2호, 1988. 4.
18. 정시춘, "조선시대 반가중심마을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12.
19. 정준현·손광제·이중우, "전통마을 생활환경구성체계와 주생활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창간호, 1990. 6.
20. 주남철,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1987.
21. 崔昌祚, 「韓國의 風水思想」, 民音社, 1989.
22. 최효승외 3인, "대청댐 수몰지구 농촌취락실측조사", 건축, 25권 98호, 1981. 2.
23. 천득염·주남철, "전남지방의 민가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권 6호, 1986.
24. 한상복외 2, 「文化人類學 槪論」, 서울대출판부, 1986.
25. 朝鮮總督府, 「朝鮮の聚落」, 民俗 苑, 1984.
26. Rapoport, A.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 Hall Inc, 1977.